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스페이스X 상장 첫날 19.3% 상승...일론 머스크, 세계 첫 '조만장자' 등극	경제	
2	이 대통령, 박서도 '여당 질책'	정치	

(1)기사/뉴스요약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9.3% 급등하며 미국 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trillionaire)'에 등극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상장한 스페이스X는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공모가인 135달러보다 19.3% 상승한 것으로 스페이스X는 장중 176.52달러까지 올랐다가 마감 직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거래량은 800억달러를 넘었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기업가치 순위는 엔비디아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번째에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된 순간,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500억달러(한화 1595조원)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1조달러인 스위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다. 세계 부호 순위 2위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보다 3배 이상 많다. 하루에 2700만달러(약 410억원)씩 1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규모다. 머스크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가운데 스페이스X(6위)와 테슬라(8위)를 이끌고 있다.

요약 :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스페이스X는 공모가 대비 19.3% 오르며 시가총액 2조를 넘어섰다. 이에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에 등극했으며 이는 세계 부호 2위인 래리 페이지보다 3배 이상 많다. 머스크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6위(스페이스X)와 8위(테슬라)를 이끌게 됐다.

(2)기사/뉴스요약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여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순방 중인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고 적었다. 그는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해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며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 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순방 중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것은 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당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발언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당, 당 내부의 분열이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어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하며 자신을 비판한 의원들 실명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이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우며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 순방 중인 14일 처음으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회의에 앞서 “해외 순방과 국내 체류 중인 실장·수석·비서관이 모두 영상으로 참가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한다”며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에도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당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 순방 중에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반도체 초호황, 거품 아닌 토대가 될 때 / 이윤주 / 경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추동하는 막대한 투자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6년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넘어서고, 2022년 챗GPT가 생성형 AI 대중화의 문을 연 데 이어, 이제 AI는 인간의 사고력에 신체 능력까지 갇출 태세다. 연일 쏟아지는 기술적 도약과 천문학적 인 투자 소식 속에, 실제 도래할 미래의 모습과 시장의 거품을 구분해내기 어렵다. AI의 비약적 발전은 관련 산업의 초호황과 동시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편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우주·AI 기업 스페이스X 상장 첫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AI와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도 각각 1조달러 안팎으로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다.

한국도 내달리는 AI 산업에 올라탔다.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이 674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나라 살림 규모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두 기업이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회동한 국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처를 넘어 퍼지컬 AI, AI 인프라 등 AI 산업 생태계의 주요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할 여지가 더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패배하는 것과 같은 지금의 분위기에 과열과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우선 AI 산업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다. 빅테크 기업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예상하는 수준으로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등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AI 거품론이 던지는 질문은 사업성과 자본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했고, 다른 많은 노동자의 박탈감을 불러오게 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단계다. 결국 인공지능 전환(AI)은 지금까지 일하고, 돈을 벌고, 생활하는 방식 전반의 사회적 토대를 새로 규정하는 일이다. AI를 빠르게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AI를 도입했을 때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재정의되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을 얼마나 소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AI로 발생한 이윤을 교육, 복지, 주거 등 사회 인프라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거나,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AI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시작할 때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전례 없는 이윤과, AI 발전의 속도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업적 측면에서 AI 인프라 선도국으로서의 강점은 지켜나가면서도, AI로 변화할 사회의 토대를 튼튼하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아체모을루 MIT 교수는 <권력과 진보>에서 꼭대기에 있는 거대 기업과, 바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경로에 미리 예정된 것은 없고, 오늘날 지배층이 만들고 있는 이중구조의 계층 사회와 관련된 어느 것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I의 미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공유된 번영이 번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JTBC 디폴트 '후폭풍'...중앙홀딩스 등 그룹사 5곳 회생신청	사회	
2	미국, 전자서명까지 마친 MOU 아직 비공개...해협 통행료는 일단 60일만 무료	국제	

(1)기사/뉴스요약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15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도 전날 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사건은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향후 JTBC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계획을 수행한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일보도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업무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 JTBC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전날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에 이어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갔다. JTBC는 앞서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타결 소식을 발표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협상팀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 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전자서명까지 마치고도 미국 측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나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해협이 다시는 폐쇄될 일이 없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란은 MOU를 체결하는 즉시 미국이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해제하고,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나머지 120억을 추가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MOU 서명 대가로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핵 포기 약속을 이행하는 속도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MOU 안에 동결자금 해제, 제재 완화,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 모든 것은 이행 성과에 연동될 것”이라며 “그들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초반에 몇몇 작은 제스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곧 공개될 것 같다”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요약 :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타결 소식을 발표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워크아웃	기업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단과 함께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워크아웃의 주요 목적은 기업 부실 방지, 채권 회수 가능성 증대, 고용 유지이다.	
2	이란 동결 자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이란 자금을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 사회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7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늘어나는 '빚투' 대응해 돈빌리는 증권사 1분기 금융보험업 대출 180조원 '역대 최대'	경제	
2	장동혁 "목표는 전국 재선거" VS 오세훈 "자리보전 구호 멈춰라"...국민의힘 '소청 내용'	정치	

(1)기사/뉴스요약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이 180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은 180조4891억원으로 관련 통계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보다 9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증가폭 기준으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컸다.

전체 대출금 가운데 운전자금은 137조8664억원, 시설자금은 42조6227억원으로 각각 직전 분기에 비해 각각 7.4%, 0.8% 늘었다.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을 위한 단기자금, 시설자금은 공장 부지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장기자금을 말한다.

시장에선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가 운전자금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빚투' 수요에 제2금융권 등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90조34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601억원 늘었다. 2022년 1분기(9조3162억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일 평균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1조126억원으로 평균으로는 처음 30조원을 넘어섰고, 5월 기준으로는 36조원을 넘어섰다.

요약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이 180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시장에선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가 대출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빚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로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올해 처음으로 평균 30조원을 넘어섰고, 5월 기준으로는 36조원을 넘어섰다.

(2)기사/뉴스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지난 6·3 지방선거 소청대상 지역을 두고 “충북도 추가로 하려고 한다”며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의 선거 소청에 대해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비판했다.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할 수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누적됐다면 사실상 의도적인 관리 부실이다. 전국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경기·인천·전남광주·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충북을 추가한 것이다. 장 대표는 서울이 소청에 포함된 것을 두고 ‘오 시장 흠집 내기’라는 지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무슨 명분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작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만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위해 소청을 추진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인데도 장 대표가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간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도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 확인한다”며 “오 시장의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선거 패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재선거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를 하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요청으로 17일 선거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다. 의원총회에서는 소청에 대한 반대와 함께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대안과 미래의 요청으로 장 대표 거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청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떤 연유에서 어느 정도로 소청할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요약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소청대상 지역을 두고 충북도 추가로 하려고 한다며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의 선거 소청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장동혁 대표의 자리보전용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소장파 모임의 요청으로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백악관 “중전 MOU 서명 완료”...미 언론 “효력 발생”	국제	
2	서울 버스 고령층 무임승차 추진에...“노인 복지” vs “재정 악화” 갑론을박	사회	

(1)기사/뉴스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중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지난 14일 전자 서명한 중전 합의는 사실상 발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17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도 복수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이날 MOU 서명을 완료했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엑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문서에 서명했다”며 “서명된 문서 사본은 이란 측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란 측도 공식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란 정상 서명 합의문이 공식 체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과 후속 협상 착수를 위해 서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엑시오스에 전했다.

다만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팀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만날 계획이다. 실제 대면 서명식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전 MOU에 전자 서명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19일 대면 서명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실물 문서 서명으로 발효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MOU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합의문에 명시된 60일의 본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원유 판매를 정상화하고, 양국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엑시오스는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도 공식 서명 시점을 앞당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요약 : 미국과 이란 정상이 중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며 중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0일간 이란은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양국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기사/뉴스요약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운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요약 :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고령층은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청·장년층은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과시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 장문석 / 사회

과시즘에 맞섰던 독일의 비판적 지식인 발터 베냐민의 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대 상형문자 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과시즘에 대한 그의 논평은 예리하면서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길다. 그는 대중에게 사회를 바꿀 권리가 있지만 과시즘은 그들에게 오직 표현의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관계는 바꾸지 않고 대중을 조직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과시즘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언어와 상징, 의례, 이미지를 창조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치를 미화한다. 화려한 유니폼과 퍼레이드, 대중연설과 공공집회가 그런 정치의 미화를 잘 보여준다.

베냐민의 논평은 과시즘에 대해 두 가지 통찰을 던져준다. 첫째는 과시즘의 목표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말할 뿐이다. 이로부터 과시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는 과시즘이 대중의 불만과 욕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베냐민은 모든 과시즘 뒤에는 실패한 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욕구가 과시즘에 투영된다는 말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젝은 이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이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직한다고 본다. 글로벌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수록 포퓰리즘은 지방적 뿌리와 연결된 공동체와 생활방식, 풀뿌리 정치의 전통을 내세운다. 종교 집단이 변성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엘리트는 포퓰리스트에 호응하는 대중을 ‘과시스트’로 치부한다. 경쟁에서 밀려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 영국 엘리트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와 더 가깝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가 실패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성공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외국인과 소수자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국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 역사 부정론도 위험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까? 정치가 대중을 좌와 우,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다른 쪽을 ‘과시스트화’하여 적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역사는 가령 18세기 영국 민중의 퇴행적 천년왕국 운동이 노동 계급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었음을, 또 프랑스 혁명기 귀족의 음모를 믿은 민중이 귀족의 특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왕도 지지할 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행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분노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불만을 보듬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일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대중의 울분은 쉽게 혐오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혐오의 정치를 ‘과시스트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진짜 과시스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젝의 농담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행인이 도와주려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남자가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느냐고 행인이 따진다. 남자가 대답한다.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기 밝은 곳에서 찾는다고. 깊고 복잡한 사회적 모순은 어둡하여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유대인은 잘 보이고 비난하기도 쉽다. 과시즘도 비난하기 쉬운 대상인데, 저기서 잃어버린 열쇠를 과시즘이 잘 보인다고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절단한 다리 재활용품으로 버린 인천 요양병원 경찰 “ 불법 수술·폐기물관리법” 수사	사회	
2	치명적 실수 한 번에 무너진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스포츠	

(1)기사/뉴스요약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중구의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관리소장은 송도에서 다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련자 진술을 들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일 고령으로 다리가 괴사 중인 B씨의 다리를 절단, 봉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60대 C씨는 쓰레기통 청소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김스용 석고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mm,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cm, 키 161~165cm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그동안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요약 :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사/뉴스요약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졌다. 이날 패배에도 한국(승점 3)은 멕시코(승점 6)에 이은 2위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A조의 또 다른 2차전에선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승점 1)이 1-1로 비겼다. 전반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한국은 상대의 거친 축구에 영리하게 대처했다. 템포를 끌어올리는 상대와 맞붙을 놓는 게 아니라 라인을 굳히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전반전 슈팅 숫자에선 2개 대 4개(유효슈팅 1개)로 밀렸다. 그래도 최전방에 배치된 손흥민(LAFC)을 겨냥하는 롱패스가 연결될 때마다 상대 수비가 흔들리면서 균형은 잃지 않았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온 전반 16분 손흥민의 칩슛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전반 41분 설영우(즈베즈다)의 첫 슈팅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는 일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5분 어처구니 없는 실책에 선제골을 내줬다. 내주지 않아도 되는 골이었다. 골키퍼 김승규(도쿄)가 공중볼을 잡아냈지만 착지 과정에서 수비수 이기혁(강원)과 부딪치며 공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 공을 멕시코 미드필더인 루이스 로모(과달라하라)의 오른발에 걸리며 골망이 흔들렸다. 김승규는 실점 직후 안타까움을 호소했지만, 실점은 실점이었다. 불운한 선제골은 상대가 수비에 전념할 여유를 줬다. 한국이 후반 12분 손흥민과 이재성(마인츠) 대신 오현규(베식타시)와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했지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려앉으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지막 승부수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의 ‘신데렐라’ 조규성(미트윌란)이었다. 후반 32분 교체 출전한 조규성은 자신이 왜 페널티지역의 지배자로 불리는지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2분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헤더로 연결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에 가로막힌 게 아쉬웠다. 조규성은 종료 직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에 이은 헤더슛을 재차 날렸지만 수비수 몸에 막히고 말았다. 결국, 남은 시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요약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예선 2차전에서 0-1로 패배했다. 예선 1차전에서 나란히 승리했던 두 팀은 전반전은 득점없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5분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실책에 선제골을 내줬다. 경기 후반 황희찬, 조규성 등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하며 득점을 노렸지만 기울어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하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베젯 법칙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전제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2	슬로파간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량 생성한 자극적이고 허술한 콘텐츠로 대중의 인식과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선동 방식을 가리킨다.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전도사 켄슨 황이 만드는 환각 / 손제민 / 경제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지난달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구직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AI가 바꿀 미래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빅머신 레코드의 CEO 스크트 보르체타가 다른 대학 졸업식에서 “음반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AI가 음반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하자 역시 학생들의 야유가 나왔다. 보르체타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야유는 더 커졌다.

퀴니피엑대 3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AI가 일상생활, 직업, 교육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미국인들은 기술기업들의 AI 개발·활용이 투명하지 않고,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AI의 의료·군사 이용에 부정적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도 높았다. AI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늘어났고, 특히 AI에 익숙한 Z세대(1997~2008년생)에서 가장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고삐 풀린 개발과 무차별적 활용으로 인해 취직 전망은 더 어두워졌고 인간관계는 더 단절됐으며 기후와 환경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이고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니, 적응해야 한다’니.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한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근 한국은 온 사회가 나서 켄슨 황 엔비디아 CEO를 극진히 모셨다. 그는 AI 주요 구성품을 독점 설계하는 사업가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그 영향력은 가히 신적이라 할 만하다. 관료, 기업인, 대학 총장,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 하루에 닭을 몇 마리 먹었는지까지 화제가 됐다. 하지만 AI 업계의 거품 섞인 막대한 순환투자 고리 속에 국가 경제가 더 깊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부각하지 않았다. 신기술에 대한 이토록 열렬한 반응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깊이 탐구해봐야 할 것이다. 식민 지배와 분단에 이은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돈과 힘이 온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된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스님’을 선보인 조계종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인간성 상실 위기에 대한 종교적 성찰과 혜안은 찾기 어려웠고 대중의 흥미에 편승해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얇은 계산만 보였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랜 토론 끝에 인간 존엄성, 관계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비판하는 회칙을 내놓은 것과 대비됐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압도적으로 산업 진흥을 통한 자본의 이윤 창출에 치우쳤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36명이 대부분 산업, 과학 기술계 인사로 채워졌고, 노동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잘 보여준다. 노동 현장에서 AI 도입을 구실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AI가 힘든 일을 줄이기보다 노동을 착취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책 담론에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켄슨 황에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한다. AI 전도사들의 잦은 방한, 과연 중복일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신은 출애굽기 속 황금송아지가 아닌가.